

부처님의 생애를 아는 것이 곧 '불교'



부처님을 만나다
일행 스님 지음
이슬 펴냄
2만3천원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이다. 아득한 다큐멘터리 한 편이 불자라면 누구나 궁금해 해야 할 부처님의 생애다. 누구인지, 어떻게 깨달았는지, 무엇을 깨달았는지, 어떤 가르침을 설했는지, 불교를 시작하는 일은 이 궁금함에서 시작된다.

책은 먼저 '괴로움'에 대해 이야기 한다. 그것도 프롤로그에서 본격적으로 다룬다. 모든 것은 그 괴로움에서 시작됐다. 괴로움이란 무엇인가.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교의 시작, 즉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지금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불교의 출발점은 '괴로움(dukkha 苦)'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괴로움임을 알고 그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불교의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괴로움은 과연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 괴로움의 원인을 먼저 살펴봅시다. 우리가 겪는 늙고 병들고 죽을 때문에 생겨나는 슬픔, 비탄 등의 괴로움, 또한 늙고 죽을 외의 다른 이유 때문에 생겨나는 슬픔, 비탄 등의 괴로움은 태어났기 때문에 생깁니다. 태어남이 없었다면 늙음도 없고 병들고 죽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와 관련된 슬

픔 등도 없었을 것이고 그와 관련되지 않은 슬픔 등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분명해진 명제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괴로움을 진실로 괴로운 것으로 알고, 그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실천을 하자는 것이고 그 실천이 '불교'라는 것이다. 그 불교는 다른 아닌 부처님의 생애이고 가르침이라는 것이다.

책은 빠알리 경전과 주석서 등의 원전에 철저히 근거를 두고 부처님 일대기와 가르침을 서술했다. 나아가 <마하뵤다원> 등 미얀마 큰 스님들의 여러 저술을 참고하여 가능한 정확한 내용을 담고자 했다. 각주에서는 부처님 일대기를 자세히 공부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빠알리 원전과 함께 그에 해당하는 우리말 번역본을 출처로 넣었다.

전반부에서는 '정등각자 부처님'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하면서 고평마 부처님께서 4 아승기 10만 대겁이라는 한량없이 오랜 세월 동안 심바라밀을 실천해서 '정등각자로서의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후반부에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안거별로 중요한 일화들을 서술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과학적 설명과 함께 부처님께서 직접 실천하신 여러 수행법에 대해서 설명했다.

"4아승기와 10만 대겁 전 / 매우 아름답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 아미타와피라는 도시가 있었다 // 그 아미타와피에 수메다라는 바라문이 살고 있었다 / 수천 만 금의 재산을 가진 매우 큰 부자였다" 책은 부처님의 발자취가 이렇듯 시간이 감당할 수 없는 시간에서 시작됐고, 생각이 감당할 수 없는 생각 속에서 비롯됐다는 것에서 시작한다. '붓다 비긴즈'



부처님의 생애를 그린 팔상성도(해인사 소장)

다. 부처님의 생애를 다룬 기록들에서 대부분 언급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거대한 단위의 시간과 생각은 불자들이 가깝지 않은 이야기들이다. 책은 이미 흥행을 마친 부처님이 부처님되기까지 경전 등 원전에 근거 '성불'에 도움되길 '부처님'의 '비긴즈' 에피소드를 소개하며 부처님이 부처님일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한다. 제3장에서는 심바라밀을 실천하는 부처님을 통해 심바라밀을 다시 공부하고,

제5장에서는 드디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롬비니로 내려간다. 정반왕, 마야부인, 싯다르타, 야소다라... 비긴즈의 에피소드에 이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부처님 이야기가 이어진다. 우루엘라숲에서 고행을 하고, 마라를 물리치고, 고행을 버리고, 깨달음을 얻기까지. 그리고 그 깨달음 앞에서의 고민. 다섯 비구에게 설법하는 부처님. 그리고 44 안거 동안의 부처님을 통해 다시 공부한다. 마지막 제8장에서 부처님은 열반에 든다. "부처님께서는 해야 할 일을 마치셨습니다. 제도할 사람을 다 제도하셨고 견네주어야 할 사람을 다 견네주셨습니다. 이제 무거운 짐과 같았던 몸과 마음조차 소멸하는 무어열반에 드는 일만 남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자 천둥번개가 치며 대지가 진동했다. B.C 544년 음력 4월 15일. 부처님은 그렇게 다녀가셨다. 책은 부처님의 생애를 소개하는 것으로 독자를 공부시킨다. "이 책을 통해 부처님에 대한 크나큰 믿음이 생겨나길 그 믿음을 바탕으로 열심히 수행하여 진정한 열반에 이르게 되시길..." 저자의 바람이 적혀있다. 저자인 일장 스님은 1996년 서울대 화공과를 졸업하고 해인사 백련암에서 원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범어사 강원을 졸업했고, 2000년과 2005년 두 차례 미얀마에 머물면서 미얀마 어와 빠알리 어 등을 공부하고 잔매 센터, 파옥 센터, 마하시 센터 등에서 수행했다. 현대 진주 녹원정사에서 초기불교에 대해 정기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 저자의 바람처럼 이 책을 통해 지니고 있는 믿음에 더 큰 부처님의 대한 믿음이 더해지길 바란다.

박재완 기자 waniholl@hyunbul.com

산에서 쓴 '사연' 들

행복한 산승의 일기

일우 스님 지음 | 클리어마인드 펴냄 | 1만2천원



스님의 사연이다. 트랙의 잔디를 적시고, 산수유를 적시고, 옛된 풀들을 적시며 내리는 봄비 같은 사연들이다. 작은 사연이 하나 끝날 때마다 그 끝에는 다짐들이 있다. 스님은 "60여 년의 세월이 켜켜이 빗방울 하나하나에 맺히듯, 맺히고 다시 풀어져서 벌써 저만큼 흐른다. 여기에 실린 글들은 그런 내 기억의 편린(片鱗)이고 그런 삶의 흔적들이다. 출가하여 사문의 길을 걸은 지 어언 40년, 흔한 말로 강산이 네 번이나 바뀌었다. 절집 생활 하면서 또 강원과 율원, 서슬 퍼런 선원 등에서 정진하면서 일어난 에피소드들, 어떤 때는 웃고 어떤 때는 슬퍼해야 했던, 인간의 표정들로 이 글은 채워져 있다." 고 말한다.

책은 출가 전부터의 사연들과 사문으로서의 사유들을 다짐들과 함께 적고 있다. 출가 전 속가의 이야기는 코끝을 만지게 할 정도로 출가자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 누구나 그렇듯 삶이 시작된 곳의 기억들은 망각할 수 없는 사연이다. 스님도 그 망각할 수 없는 사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다. 수행자로서의 삶, 불초(佛祖)와 스승의 은혜, 도반들의 은혜, 그리고 시주단월(施主檀越)의 은혜, 이 모든 연기의 관계성 속에서 그리운 속가의 시절은 밟던 굽던 '가슴'의 골조임을 어찌할 수 없다. "그렇게 할머니를 떠나보낸 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공부는커녕 학교에 가지조차 싫었다. 머릿속과 가슴속이 온통 할머니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갈땀하면 무덤에 찾아가 울다 잠들곤 했다. 활명수 병만 보아도 요강 단지만 보아도 할머니의 품이 너무나 그리워 어떤 일도 집중할 수가 없었다." / "만날 때도 헤어질 때도 맨발로 뛰어나와 얼싸안고 울던 어머니. 당신이 먼 길을 떠난 날, 해인사에서 우연찮게 바라본 밤하늘에 별이 반짝하고 빛을 내다 이내 사라졌다. '중물'이 들수록 세속과는 점점 멀어져 집에 발을 끊게 된 때였는데, 그 별을 보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알았다." /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당신들의 사랑이 불보살의 가피와 여찌 다를까. 아무리 속세의 인연이라 한들 두 여인의 사랑을, 그 가피를 단 한 자락도 잊지 않고 기억하려한다."

그렇게 망각할 수 없는 속가의 시절을 거어어 접고 스님은 불가에 귀의한다. 성철 스님께 받은 화두 이야기, 도반들과의 잊지 못할 이야기 등 사문으로서 겪은 사연들이 봄비처럼 책장을 두드려 고 지나간다. 창밖의 빗소리처럼 들려오는 사연들. <행복한 산승의 일기>는 행복한 시간의 모음이다. 글을 쓴 일우(一守) 스님은 스물세 살에 우연히 스님을 따라 대흥사로 출가했다. 본사는 백양사, 은사 스님은 학봉 지선 스님이다. 해인사 선원에서 첫 안거를 시작한 후, 50안거를 성만했다. 고불총림 백양사 선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 성북동 법전사 문선선원 선원장, 조계사 자율선원 선원장으로 수행 정진 중이다. 박재완 기자

불국사 갈 때 들고 가면 좋을 책

불국사 다시 가기

박종두 지음 | 생각나는 펴냄 | 1만2천원



사람도 분야별로 수없이 많다. 이러한 국민적 명소인 불국사를 보편적인 눈높이로 설명해 주는 책이 나왔다. 책이 나온 이유는 이러한 불국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흔치 않고, 더욱 심각한 것은 그나마 알고 있는 사실조차 오류가 많다는 것이다. 책은 우리 문화재를 처음 접하는 장소이며 국가대표 문화재로 손색이 없는 이 불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한 까닭은 우리가 배워왔고, 지금도 배우고 있는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불국사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기

인한다고 말한다. 다음으로는 문화재를 기본적인 식견도 없이 가르치고 관심 없이 배우는 문화재 학습 형태와 더불어 문화재를 탐방하려 왔으면서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우리 모두의 잘못된 탐방 습관도 지적한다.

"옛날에는 오늘날 잔디밭 자리에 깊은 연못을 파고 흥에 밀려서 맑은 물이 흘러서 그림 배가 드나들었다 한다. 그래서 이 중흥대를 정운교 백운교로 아름 지는 것이라 생각된다." 엄서나 달력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불국사의 대표적인 상징인 정운교 백운교다. <불국사 다시 가기>는 불국사에 대한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밝혀내고, 처음 문화재를 접하거나 알려는 사람이 어렵거나 지루해서 포기하지 않도록 쉬우면서도 재미있게 풀어냈다. 그리고 불국사 도좌부터 경내 모든 곳의 탐방을 마칠 때까지 이 책을 펴 들고 함께 한다면 불국사 돌조각 하나에서도 역사의 숨결이 느껴지고, 숨어있던 문화재의 매력과 흥미를 찾게 될 것이다.

저자는 "자신의 문화유산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민족에게 문화적인 미래는 없다. 조상의 숨결이 스며 있는 문화유산을 바르게 아는 문화의식 없이는

미래의 문화를 창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출간의 의미를 밝혔다. 저자는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며 미래 세대에겐 문화재에 대한 소중함과 올바른 문화의식을 심어주는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한 책임을 느끼며, 자성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지금까지 나그네처럼 다녀왔던 불국사로 다시 떠나자. <불국사 다시 가기>가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문화재 여행으로 안내할 것이다. 저자 박종두는 현재 대구 성일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틈틈이 불교문화재에 대한 자료를 모아 2011년 8월, 사찰 문화재 탐방 안내서 <절, 그 속 그날 지나칠 수 없는 우리 문화재들>이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박재완 기자



청운교 백운교가 보이는 불국사 전경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5/30~6/5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2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3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해인	생앤퍼커스
4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출판
5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목	공감
6	받아들임	타라 브랙	불광출판사
7	탄허록	탄허	휴
8	경허	일지	민족사
9	대안스님의 마음설레는 레시피	대안	김영사
10	석암스님의 범망경 강설	석암문도회	불광출판사

※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www.minjoksa.org

경허선사가 살아 있다면 그의 제자가 되고 싶다!

(-미국 컬럼비아대, 로버트 서먼 교수의 내한 인터뷰 중에서)

“만공이 스승 경허에게 물었다. “스님, 저는 술이 있으면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지만, 스님은 왜 그렇게 술을 드시는 겁니까?” 경허는 만공의 말꼬리를 잡고 말했다. “허 참, 자네는 아주 도가 높네 그려. 나 같으면 술을 먹고 싶으면 가장 좋은 밀씨를 구해서 잘 키워 술을 빚어서 마시고 또 마시겠네. 또 파전이 먹고 싶으면 파씨를 구해다가 잘 가꾸어서 파전을 먹고 또 먹겠네.””

술에 취해 꽃밭에 누운 선승

경허

글·일지 | 352쪽 | 13,000원 | 소프트양장(150×208mm)

민족사 | 서울시 중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런 1131호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이메일. minjoksa@chol.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minjoksa 동업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지치고 힘겨운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

시골벽적인 마음이어 지금, 잠시, 쉬었다 가져라.

지치고 힘겨운 당신에게 복잡하고 빠르게 뛰는 당신에게 작은 휴식을 선물합니다.

행복한 마음 휴식...

석재현 지음 | 424쪽 | 15,000원 양장(146×185mm)

민족사